



- 센터소개
- 주요사업
- 최근소식
- 상담하기
- 성매매란
- 신고하기
- 후원안내

 <b>최근소식</b>
공지사항
유익한 소식
뉴스레터
웹진단
뉴스레터 기사
활동소식

## 공지사항

홈 > 최근소식 > 공지사항

### <활동소식> '좋은삼촌' 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등록일 2015.08.13      조회수 2906

안녕하세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입니다.

혹시 '착한삼촌'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담배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며 가출한 십대소녀들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구속되어 내일 8월 13일 목요일 오후 1시 5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와 함께 공동 고발한 사건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어린소녀들이 더 이상 나쁜 어른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관련기사: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580>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글 <활동소식> 2015 관악지역 청소년 연합아웃리치



사업자등록번호 : 109-82-73150 | 대표자명 : 조진경 | 주소 : (07220)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40 은혜빌딩 6층  
사무 : 02-6348-1318 | 상담 : 010-8232-1319, 010-6864-1319 | 이메일 : teen-up.com@daum.net

## 1. 부천 공동고발 기사

[TV조선] 가출 여학생에게 '좋은 삼촌' 알고 보니 '성폭행범' -김승돈 기자

2015.02.24 08:16

부천역 앞에서 10대 가출 청소년들에게 공짜로 담배를 주고 자신의 월세 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던 회사원 A(42)씨가 사실은 성폭행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0대 여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한 뒤 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가출 청소년에게 담배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이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때 '좋은 삼촌'으로 알려졌지만, 알고보니, 추악한 두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부천역 앞입니다. 42살 회사원 A씨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공짜로 담배를 주고 자신의 월세 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집에 와서 며칠 지나고 나면 이들을 성추행 하는 등 숨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 시민단체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밥이나 담배 그리고 치킨이나 술을 사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아이들이 경계를 풀면 수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만 모두 4명. 성폭행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쉬쉬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가출 청소년 유인 수차례 몹쓸 짓... 40대 회사원 구속 기소 -기호일보

2015년 02월 24일 (화)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가출한 여중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13)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에게 접근해 잠자리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출한 뒤 부천역 인근에서 떠돌다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여중생의 몸을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좋은 삼촌으로 불리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범죄피해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가출 청소년 유인 수차례 몸쓸 짓... 40대 회사원 구속 기소

✎ 최두환 기자 | ☎ 승인 2015.02.24 | □ 18면

가출한 여중생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한 여중생 B(13)양 등 10대 여자 청소년 4명에게 접근해 잠자리와 술, 담배 등을 제공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가출한 뒤 부천역 인근에서 떠돌다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천역 일대에서 가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공짜로 주고 자신의 월세방에서 잠을 재워 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도와준 것"이라며 "여중생의 몸을 만진 적은 있지만 성관계를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좋은 삼촌으로 불리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가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산 뒤 단칸방으로 유인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피해 여중생에 대한 정신적인 치유와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십대여성인권센터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